

# “지금 필요한 책이 바로 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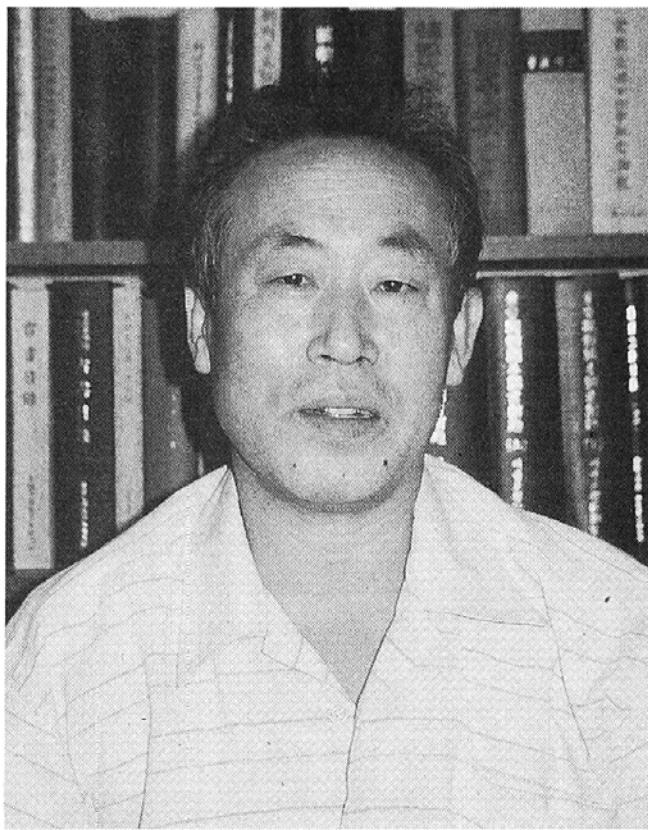
## 독서주간에 만난 불자장서가 박영돈 씨

낮에는 하늘이 높고 밤에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다. 천고마비(天高馬肥)가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등화가진(燈火可親)은 책읽기 좋은 절이란 뜻이다. 비야호로 독서의 계절인 것이다. 18일부터 한주간이 굳이 '독서의 주간'이 아니라도.

국민학교 졸업장 밖에 갖지 못했으며 정직 은행수위 출신인 박영돈씨(60). 독학을 하며 책읽기에 흠뻑 젖어 이미 7년에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장서가상을

읽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작정 필요하다거나 궁금하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독서 목표가 미리 서 있어야 합니다. 문학서건 기술서건 아니던 역사서건 자신의 관심사에 따른 분명한 목표의식과 수준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서주간이라고 '책을 읽자'는 캠페인도 밝히고 있고 큰 서점은 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책을 적게 읽는 국민이란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 수요 인터뷰

을 받았던 박씨는 20여년째 일연(一然)스님의 비문 원형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일연스님 관련 자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박씨는 그간 1만여권의 책을 모으며 '책속의 길'을 두루 편력한 독서가이자 장서가이다. 독서주간에 화폭2등 그의 서재에서 만났다.

**손때묻은 만여권 '재산'**  
-독학을 해야 했던 여건이 장서가가 되게 한 것 같군요.  
▲따로 장서가란 이름을 듣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디다만 혼자 공부하던 어린

▲없는 것 보다는 그런 독서주간이 있는 것이 좋겠지만 따로 독서주간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만큼 책 읽는 국민임을 알리는 일일뿐이지요. 1년 내내 독서주간이어야 합니다. 1주일짜리 독서주간에 한 책 읽고 나머지 시간은 안읽어도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발적인 독서운동 보다는 책을 읽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 읽으라고 막연히 권하는 입은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읽으라'는 충고나 '왜 읽어야 하나'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소리는 흔치 않은 것 자체도 속히 시정돼야 할 문

## 책은 스승...독서 안하면 낙오되는 사회 풍토돼야 국졸 후 독학...일연스님 문헌찾아 20년동안 몰두

시절부터 책을 좋아할 수 밖에 없었지요. 내게 있어 스승은 오직 책 밖에 없었으니깐요. 그저 필요한 책을 사다 읽고 모으다 보니까 나중엔 체계적인 서적 관리법도 배워야 하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도 가늠하는 눈도 떠지더군요. -요즘은 독서도 유행을 타는 것 같은데요.  
▲광고 덕분이었지요. 책 자체가 상품화 된지는 이미 오래된 얘기잖아요.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양질의 상품을 만들고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가슴 아픕니다. 결국은 책을 고르는 사람들의 안목에 달린 것인데 유행이 최상은 아니지요. 내 경험에 비춰 본다면 가장 좋은 책은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책이 그 순간 최고의 양서란 것이죠.  
-좋은 책을 골라 읽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내게 지금 필요한 책이 좋은 책이라고 얘기 했듯이 그저 필요할 때 구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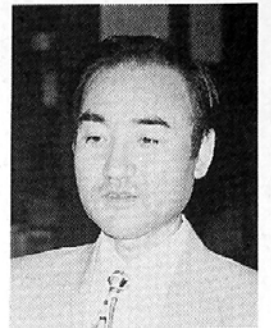
제고요.  
-선생님께서는 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게 있어 책이 스승이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책은 스승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살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배우고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 읽기는 지식 쌓기 보다 지혜가꾸기란 측면에서 권장돼야 한다는 게 나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지혜가꾸기 독서는 불교서적이 합당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독서지도 방법은 뎡다면.  
▲집안 분위기 자체를 책읽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모가 늘 책을 읽는데 자녀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릴때부터 책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생각 방향이나 이해수준등을 생각해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일테지요.  
-학생들이 공부에 매달려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 읽기는 등한시해 온 것이 교육제도의 잘못이란 반성도 많았습니다. 이제 교육개혁도 이야기 되고 있으니 청소년 독서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허증(졸업장)만 있으면 먹고 산다는 식의 인식을 북돋아주고 평생 읽고 연구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직장인 고용주들도 많은 자리가 있어야겠지요.  
**지식보다 지혜 가꾸기**  
-선생님께서 소장하신 책들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젊어서 모은 책은 대부분 문학서적이었습니다. 문학이 좋아 닦치는대로 구해 읽었는데 점차 문화사쪽으로 관심이 기울더군요. 그때부터 주로 문화사 관련 책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일연스님을 만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의 효성과 그가 남긴 삼국유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에 반해버렸지요. '일연'이나 '삼국

유사'란 글자가 들어있는 문헌이라면 무엇이든 구해다 읽게 됐는데 그것은 관심 있는 분야의 도서는 모두 섭렵하려는 나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많은 도서를 모아두고 읽고 지내시면서 특별히 일연스님의 비문 원형찾기에 몰두하고 계신데요. 책을 모으는 기쁨과 한 분야에 몰두하는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책이야 읽고 싶을 때 구해다 읽으면 된다면 늘 서점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젊어서부터 전국 도시의 헌책방을 뒤지며 삶의 즐거움을 찾았지요. 오랫동안 찾던 책을 깨닫는 먼지 속에서 찾았을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일연스님에 대해서는 매우 인간적이었던 수행지란 점에 매료되어 빠져들었는데 반드시 그분의 비문을 완전하게 복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기에 내가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의 전부일뿐입니다.  
임연태 기자



이광준 <동서심리학과연구소장>



누구나 꿈많은 청소년 시절, 아마도 중학교 3학년 때라고 생각된다. 동네 젊은이들이 책읽기를 권장한다고 그 어렸던 옛날에 돈 몇천씩을 모아서 책을 사다가 독서회를 만든 적이 있었다.

나는 이 독서회 덕분에 어렵지 않게 책을 접하면서 우연히 인도의 대문호인 타고르의 시집을 읽으면서 알듯 모를듯한 진리의 세계를 접한 느낌이 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봄날, 여름날에 잠이 생기면 타고르의 시집을 들고 시골마을의 뒷산 잔디밭에 누워 시를 읽으며 시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상념에 잠긴 때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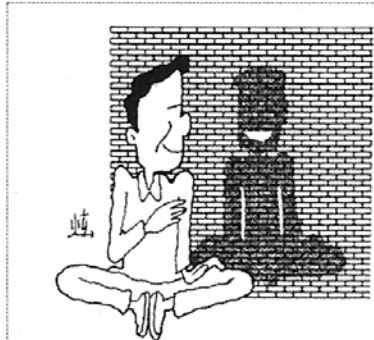
그때 내가 사는 시골동네에서 2km 정도 떨어진 마을 뒷산에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다. 집안 아이들 생일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나 큰 형수님이 그 절에 들려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께 올린 공양이라며 떡을 가져와서는 나눠주시곤 하셨다.

을 떠난 진정한 학문이라는 생각이었다. 내가 진정한 불교를 느끼게 된 계기는 대불련 활동을 통해 해인사 선방에서 가졌던 참선수련회였다. 강주스님의 참선지도를 통해 선이 무엇이며, 어묵동정(語默動靜) 행주좌와(行住坐臥) 동안에도 참선은 계속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귀에 사무쳤다.

이를 계기로 나는 습관처럼 어느 장소, 어느 때에라도 '선'을 생활화하게 되었다. 망상이 떠오르거나 머리가 아플 때도 '이 빛고'를 찾게 되었다. 선과 심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도 이를 계기로 지속된 것이다. 계속 참선을 한 덕분에 건강치 못한 내 육체도 정신과 함께 든든해졌다. 이제는 최소한의 수면으로도 생활의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 '사는게 뭔지' 의문 풀려고 입문 禪 수련으로 건강 되찾고 선 심리학 전공

순진하기 이를 데 없던 그 시절에 그 떡을 먹으면 부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몸에도 그럴 수 없이 좋아서 피와 살이 되고 건강해져 소원성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인지 왜 그리 맛이 좋았던지...



내가 생각하기에 번뇌망상은 심리적 에너지 소비해 사랑을 피로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선정(禪定)에 들면 이 심리적 에너지를 보존하게 되어 정신은 물론 몸도 피로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어릴 적 부처님의 인연으로 인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자연스레 다가왔다. 18세 때라고 생각된다. 그 나이 쯤이면 누구나 정신적인 방향을 하게 되고 인생과 인간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되물게 되는 시절이기도 하다.

간간 불교서적을 읽어서인지 나는 더욱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심을 쏟았던 것 같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하루하루 현실에 끄달려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다 나이 20이 되어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고민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중 사는게 무엇인지를 묻는 공부에는 불교공부가 제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렵듯이 들어 불교에 정식으로 입문하게 되었다.

동국대에서 대불련활동을 하면서는 불교는 그 학문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나 보물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불교는 학문

신체적 인격적 성숙을 도와준 훌륭한 부처님의 방편이었다. 내내까지 집필이 완료된 <한국의 선리구조와 선심리학>도 그간 행해 온 선수련의 도움을 입은 것이다.

이제는 어느정도 타고르가 읊은 시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시아가 불교 문화로 꽃을 피우고 서로 손을 잡고 번성할 때에 한국 또한 민족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였고, 태양이 떠가가는 다시 지고 또다시 떠오르듯이 2차대전전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한국과 아시아는 또다시 문명의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불교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국제화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고도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불교가 이 시대에 보조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조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학으로서의 불교학도 신앙하는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참선을 비롯한 수련이 생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7치 : 23.1cm)

일천불 조성



(5치 : 17.5cm)

삼천불 조성



(1치 : 33cm)

일만불 조성



장인의 진과 열을 담았습니다  
-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1380°C에서 구워낸 도자기불상입니다.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 (주) 국보도자기, 국보기획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 대표 권영천 합장